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 수용 및 교육자의 경험*

박 신 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계획사업은 그간 개개인의 특성과 피임원리의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기보다 인구억제 효과에 근거한 특정 피임방법의 보급에 주력해 왔으나 오늘날은 대상자의 문화, 종교, 사회경제적 위치 및 교육수준 등에 적합한 방법을 보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1 ; Kimberly & Mary, 1991).

따라 정부나 특정단체는 제한된 특정 피임방법만 보급하기보다 피임을 원하는 부부가 여러가지 피임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시도되어야한다(박신애, 1994).

자연적 가족계획사업은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기여한다.

올바른 자연적 가족계획법사용을 위해서는 부부는 성, 인간 및 가족의 의미를 잘 알도록 하며 인간과 삶의 진실성, 인간과 가치, 성에 대한 가치, 사랑과 소속감에 대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족계획에 관한 인구학적 문화적 측면이라고도 하겠다(Michele,

1989).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에서는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윤리, 도덕적 문제와 부작용, 늘어나는 인공유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고 자연적 가족계획사업을 보급하는 행복한 가족운동을 전국 산하 14개 교구에서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80개국 이상이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전국적인 보급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프로그램에서 운영하기도 한다(맹광호외, 1985).

한편 자연적 가족계획법에 대해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이 자연적 가족계획에 관계된 지식이 별로 없고 부정확성과 주관성같은 문제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및 일반조직에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ippley, 1986 ; Flynn, A., 1989).

1988년 독일여성 1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구피임약복용 38.4%, IUD 10.3%, 콘돔 5.9%, 자연적 피임방법사용이 3.9%로 나타내며 경구피임약을 선호하며 불임수술자가 거의 없는 특징을 나타내었으나 경구피임약복용 및 IUD방법이 효율성이 높다 할지라도 위험요인 및 부작용의 가능성으로 포기율이 높았고 대상자중 47%가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에 대해 높은 흥미도를 나타냈으며 대상자중 20%가 건강 및 생태학적인 이유로 다음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Frank & Doring, 1988). 스웨

* 교내 연구비 지원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멘에서도 인구의 20%가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사용
하기 원한다고 하였다(Barbato, M. & Bertolotti,
G., 1988).

우리나라 피임실천부부의 피임방법중 자연적 가족
계획에 해당하는 주기법 사용이 1966년 전국조사의
경우에서는 전체 피임실천 부부 20%중 7%를 차지하
였고 1982년조사에서는 전체 피임실천부부중 10.3%
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경구피임약이 5.4%, 자궁내
장치 6.7%보다 단연 높은 실천율이다. 또한 1983년
충남 1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임실천 부부
58.8%중 절반이 넘는 25.9%의 부부가 주기법 아니면
성교중절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크게 주목을
끌었다(맹광호 외, 1985).

피임방법 선택에 있어 권장 피임방법인 불임수술이
갖는 한계점과 타방법의 적용상 개인차에 따른 애로
점 및 부작용으로 인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의 대
상자가 실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 주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자연적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자연
적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용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맹광호외, 1985 ; Rodriguez-Ga-
rcia, R. et al., 1991).

따라서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의 가치, 방법의 효율
성(피임실패율과 성공율) 성공적 이용자들과 실패자
들의 특성, 만족스럽게 시행하는 부부들에 대한 훈련,
정보제공, 장기 사용자의 적응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Barzelatto, J., 1989).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장기 사용
자의 특성과 장기 사용과정에서 경험하는 적응과정을
파악하여 자연적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코저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II. 문헌고찰

1.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사용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 가족보건 연구원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연적 가족계획(리듬주기법) 이용자들의 특성에 교
육 및 소득수준이 월등하게 영향을 미쳤고 도시 지

역부부가 농촌지역부부보다 그리고 전문직 또는 사무
직종사자 부인이 타직업보다 자연주기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연령 및 종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맹광호, 1984).

Olus 등(1989)은 케냐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등록
한 10,000명중 계통확률로 추출한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연주기법을 사용하는 집단
의 연령층이 높았고 결혼기간이 길었으며 배우자간의
관계도 더 좋은것으로 나타났다(Olus, O. et al.
1989).

1986년 페루의 인구 및 보건조사에서는 자연적 가
족계획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식 및 부인의
교육수준 등이었으며 대상자들의 현대 피임방법의 부
작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고(Sharma, R. K.,
1991)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부의 의사소통이 좋지
않으며 성관계에 대해 별로 토론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Mendis&Goodwin, 1989).

Frank-Herrmann, P. 등(1991)의 연구에서는 자
연적 가족계획방법의 교육을 받은 851명의 독일여성
중 255명이 오로지 자연적 가족계획방법만 사용하였
고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지속적인 이용에 직장여
성, 기혼여성 또는 자녀가 없는 여성인 경우 영향을
주었다.

Batzelatto(1989)의 개발도상국 멕시코, 페루, 스리
랑카의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사용자는 도시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김화순, 이태준(1982)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천주교
신자인 경우 도중탈락율이 낮았고 대상부부중 부인이
천주교신자가 아닌 경우 도중에 탈락할 비교위험도는
2.25로 높았고 자녀가 없거나 하나인 경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보다 도중 탈락할 위험도가 0.42로 낮았다.

Perez, A등(198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중요
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대
부분이 가톨릭이거나 신교(기독교)이었으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율이 높았고 소득수준은 중층이 60%,
상층 및 하층이 각 20%로 중간층이 많았다.

Dorarai, K(1988)가 실시한 인도의 53개 빈곤지역
에서 표본추출한 260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연
적 피임법 수용에 영향을 주는 정신사회적 요소에 관
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부인보다 국민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가
진 부인들에게서 자연법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자연법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여 문맹과 자연법 수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자연법에 수용도가 높았으며 자연법이 생활방식에 적합하고 금욕을 해야 한다고 빈곤층 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에 따라 수용에 차이는 없었으며 자녀수가 적은 부인은 자연법을 사용했으나 적격의 자녀수를 가진 부인들은 자연법을 원치 않았으며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자연법사용율이 높았다.

김화순외의 연구(1982)에서는 자연적 가족계획실천시 도중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의 협조가능성이 없는 경우, 부부가 종교가 없는 경우, 남편이 부인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경우, 부부가 같은 종교가 아닌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의학적 및 윤리적인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그다음이 종교적, 도덕적 이유였다.

이와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조사된 요인들은 연령, 종교, 교육수준, 도시와 농촌, 자녀수, 직업, 결혼기간, 생존아들수, 가족계획지식 및 다른 가족계획방법이용에 대한 경험이었으며 이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2.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 사용의 효과

지난 10년간(1981-1991) 세계 20여 개국에서 보고된 자료는 효과측정 방법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비교되지는 못하지만 임신율이 가장 낮은 율이 2.55, 가장 높은 율이 27.9%로 평균 13.1%였다. 평균보다 높은 임신율이 나타난 연구는 대부분 1980년 초반에 완성된 것이었으며 임신율이 평균이하인 것은 대부분 1988년이후에 완성된 것이다. 이는 1980년대를 통해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프로그램이 발전되었으며 대상자측면에서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Kambic, R. t. 1991).

Labbok M., Klano H., Perrey A.(1991)은 실패율을 100명의 여성당 계획치 않은 임신수로 나타내어 Pearl Index로 계산하였는데 계획치 않은 임신수는 노출달수(Number of Month of Exposure)에 1200을 곱하는 것이며 지속율은 (Continuation Rate)는 1년 동안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칠레에서의 지속율은 68%이었고 방글라데쉬, 한국에서는 67%, 케냐에서는 50% 지속율을 보였다.

Petra Frank-Hermann, Gunter Freumd 등(1991)의 연구에서 851명의 독일여성 중 255명은 오로지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만 사용하였고 이들의 Pearl Index는 2.3이며 혼합방법 사용자의 Pearl Index는 2.1이었다. James Trussel & Laurence Grummer-Strawn(1991)의 연구에서는 배란기법을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첫 1년기간의 실패율이 3.4%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나 부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첫1년동안의 실패율은 4.2%였다. 첫 1년동안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한 대상자가 87%이었으며 13%의 대상자는 부정확하게 사용하여 전반적인 실패율에 영향이 미쳤고 첫 1년기간에 22.5% 여성이 계획치 않은 임신을 했다.

Kambic, Gray등(1989)의 연구에 따르면 1983-1988년에 리베리아 10개지역 1492명 등록자 중 사용기간 1년동안의 실패율이 4.2%, 지속율은 79.5%였고 잠비아에서는 5000명의 등록자 중 같은 기간의 실패율이 10.4%, 지속율이 69.5%였다. St. MART, Kambic 등(1989)의 연구에서는 미국 펜실바니아주 성요셉 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프로그램의 실패율은 12.2%, 1년간 지속율은 68.0%으로 Mauritus주민에서 실패율은 6.1%이며 1년간 지속율은 76.3%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이는 펜실바니아주와 Mauritus에서 임신을 원치않는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며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중단하는 경우의 여성들은 임신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Queenan & Moghiss(1991)는 WHO에서 시행한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의 배란기법에 대한 연구에 의한 배란기법을 정확히 사용하는 경우 97%의 효과가 있었으며, 실패율은 3%였다. 이들은 3주기 동안 훈련교육을 받은후 수정기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WHO에서 배란기법을 재분석하여 그방법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실패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이 끝난후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임실패율이 3.1%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율은 86.4%였다(Trussell, J. & Grummer-Stawn, L., 1991).

Pyper와 Kinghts (1989)는 피임부부 및 불임부부의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의 효율성과 비용을 측정하였다. 간호사가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교육과 시청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한 72명의 여성의 903 주기중 2건이 계획치않은 임신으로 나타나 실패율은

2.7%이었다. 비용은 2년간 대상자당 평균 4시간교육을 근거로 해서 \$37,55으로 10년이상 이 가격을 유지하면 78\$이며 이것은 경구피임약 \$400, 다른 자궁내 장치 354\$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비용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교육적 가치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으며 수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이 연구결과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은 효율적인 비용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mbic, R(1991)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사용효과와 지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결과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않는 한 도움이 되지못한다고 역설하였으며 Carl Dierassi 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임법 발달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위기는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전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기회에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효율성 여부의 결과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사용부부중 남편의 33.3%가 수정증상을 기록하는것에 약간 또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결혼의 적응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친밀감(애정표현 및 친밀한 관계 표현)에 대한 표현은 높았다(Mendis & Goodwin, 1989).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상자의 유아시절은 전쟁고아로서 정확한 본인의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48세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육원에서 성장하였으며,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여 일류학교에 다니 고아원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단체 기합을 받는다거나 할때도 항상 예외적인 존재로 성장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8월쯤 원장님과 대학진학 문제를 상담하는 동안 진학학교 선택에 대한 마찰때문에 보육원에서 가출하게 되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직장 내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1년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남편과 아들 하나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두아들을 두었으나 차남이 4살때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대상자는 비교적 자아가 강하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

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1995년 2월 2일까지 연구자에 의해 주로 비형식적 면담과 관찰을 현장노트와 녹음기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면담시간은 대체로 2시간에서 2시간30분정도로 소요되었으며 총 4회였다. 초기의 면담은 주로 개방식 대화로 진행하여 대상자가 자유롭게 말하도록 유도하였고, 첫 면담이후 부터는 준구조화된 면담지침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Agar가 제시한 적절한 미끼(bait), 분포 점검, 대상자의 추정, 대조 등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보관 및 기록을 위하여 휴대용녹음기로 녹음하였으며 현장노트를 기록하였다.

녹음을 하기위해서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녹음내용을 연구 이외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것임을 확인한후 동의하에 시행되었고 면담이 끝난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현장 노트를 기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Agar의 분석단계에 따라 사건, 주제 및 적용의 3가지 수준중 연구기간 관계로 인하여 3번째 적용단계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자연적 피임방법의 장기간 적용자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본 연구의 특성상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적용과정으로 전통적으로 타부시되거나 꺼리는 개인의 성생활 및 부부 관계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대상자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첫단계의 분석은 대상자로부터 직접 대상자의 생의 주기에 따라 성의 개념에 대해 견해와 설명을 듣고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녹음 자료를 옮겨 적은 사본과 현장 노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속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 이를 면담 자료와 현장노트의 옆란에 기록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첫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주요한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과 설명에 대한 주제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은 대상자의 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정의하

는데 도움을 준다. 이 단계에서는 Agar의 연필과 가위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연적 피임방법은 단순한 피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경험 및 성에 대한 인식, 성생활 및 부부상호작용에 변화를 경험하며 생을 건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는 본 연구의 주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식,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적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고찰된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심층면담과 관찰을 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성에 대한 개념과 자연적 피임방법의 적용으로 변화된 성에 대한 개념과 부부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성

교육 및 피임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신뢰관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Leininger 1985)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얻고자 장기간 동안 자연적 피임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수차례 함으로서 수행하였다. 면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연구자와 함께 면담을 하였다.

IV. 자료 분석 결과

1.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

1) 성에 대한 지식

-
- (#01) P : “동네 아이들하고 함께놀면서 생리라는 말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생리라는 말은 들어왔지만 그것이 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은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애”
- (#02) P : “국민학교 6학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업드린 상태에서 숙제를 하고 보니깐 발뒤꿈치에 뭐가 묻는 거예요. 보니깐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깐 나 발뒤꿈치에 피가 났다고 여기가 아픈가 보라고 다리에는 아무군데도 다친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봤더니 똥구녕에서 나온거 같애.”
- (#03) P : “중고등학교 다닐때 화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에는 용변을 다보고 나머지는 생리혈이 빨갛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생리후에 떨어지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생리를 하면서도, 그래놓고 용변보고 그것이 빨갛게 떨어져 있는것을 보면 나는 학교를 발각 뒤집어 왔어요. 우리 학생중에 누가 이질 걸렸다고 이질은 급속도로 번져가는 건데 누가 이질 걸렸냐고, 교실마다 묻고 다니고 난리 버거지를 친 거예요.”
- (#04) P : “내가 하는 것이 월경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들이 피나온다는 개념이 아닌 전줄 알았지 내가 하는 건.”
- (#05) P : “고등학교때 변을 보고 나서 일어서는데 피가 주르르 흐르기에 묻는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질’때문인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 (#06) P : “브라자를 한다. 그래서 옷밑에서 끈이 이렇게 두개가 보이면 그다음부터 놀리는 거예요.”
- (#07) P : “남자를 사귀어도 안되는 것이고 사귀어도 안되는 것이나깐 더 더욱 남자랑 어떤 성적 접촉이라든가 이런걸 하면 죽는줄 알았죠.”
- (#08) P : “성교라는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몰랐기때문에”
- (#09) P : “살아보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는데 하라 소리는 안하더라고”
-

대상자는 월경 및 이차성징, 이성교제 및 성행위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때문에(#01) 사전예비지식이나 준비없이 초경을 맞이하여 난처함을 경험했고(#02), 더구나 타인들의 월경현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작은 소동을 벌이는 등의 실수를 하였다(#03, #04, #05).

유방보호를 위한 행위와 이성교제 및 성행위에 대해서도 지식없음을 나타내었다(#06, #07, #08, #09).

2) 성행위에 대한 태도

(1) 부정적 견해

(#10) P: “남편이외의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는 목숨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11) P: “자기가 자랑스럽게 선택 할 수 있는 것이어야되는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것으로 강요화된 것이니깐. 그러니깐 행복한 거와 다른거지.”

(#12) P: “짐승처럼 sex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깐”

대상자는 성행위에 대해 남편이외의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것은 목숨과 연결시킬 정도로 정절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었으나(#10) 성행위를 사랑에 의한 호

(2) 긍정적 견해

응이라기 보다 남편의 강요에 의한 타의로 받아들이고(#11) 짐승같은 행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12).

(#13) P: “성교라는 행동은 사람이 생겨나는 행동이거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영광스런 일이”

(#14) P: “충분조건을 한번 몇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경제력까지. 경제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이야기 되는 건 아니고 현금은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경제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자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SEX를 해가지고는 않되지 않는가 말이다.”

(#15) P: “정충이 너의 자손이 된다. 너의 자손을 담배먹고 만들고 술먹고 만들거나.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를 할 사람이라고 우리 몸에는 그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 있는 거라고 그 질서가 바로 성으로 나타나는 거다. 언젠간 우리가 그 질서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다. 성교는 중요한 행위이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충분조건을 우리는 만족시켜야 되는 거라고.”

대상자는 성에대해 부정적 견해에서 갑자기 긍정적 견해로, 성행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13)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조건으로 경제력과(#14) 신체적 조건(#15),

3) 성행위

행위의 의미가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행위이다(#15)라고 제시하는 등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창조설까지 인정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16) P: “원래 그 사람이나 나나 성관계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쪽에서는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이고 저는 싫은 입장이고 그 사람쪽에서도 여자를 즐기는 입장이 아니예요.”

(#17) P: “거의 내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깐 내가 거부할 하니까 결혼초에 성관계는 많으면 일주일에 두번, 세번정도 아픈데도 하는거지. 첫아이 임신해가지고 삼개월 지나가니깐 우리 애기 아빠가 그때부터는 안오더라고요. 애낳고도 5개월까지는 안오더라고요.”

(#18) P: “일년에 많이 만나도 5번정도나 만났을까 말까 일꺼예요. 성관계가 없어도 살 정도예요.”

(#19) P: “남편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남편쪽에서 보았을 때에는 청순한 입장에 있는 걸로 보이니깐. 또 내가 우리애기 아빠를 볼때 우리 애기아빠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러다 보니깐 그 사람 자체도 내가 그런 여자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가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구가 멎기니깐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안되니깐 그만두고 이랬던것 뿐이지. 아직도 남자로서 실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20) P: “관계를 갖는것에 대한 것-거부감이 오지요 나는 영원히 안가져도 좋대니깐. 성적인 욕구는 고사하고 고생스럽지. 고생스러워도 너무 고생스러운 거죠. 기쁨이나 만족같은건 전혀 없지. 고통만 있지. 질근쳐 그러니깐 치골, 미골 이쪽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관계를 갖고 난 이후에도 분비물 상태가 흐르니깐 그때도 쓸리고 아프고 관계를 갖고나면 쓸리고 아파요.”

(#21) P: “나는 성관계만 가지면 아파. 난 애를 낳기 이전에도 그렇고 난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깐 성 관계와 난 인연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도 남편이 내 안에 삽입시키려고 하면 지금도 아파요. 애기를 들썩이나 낳았는데도 아직도 아픈걸 보면 질구가 역시 작긴 작은가 봐요.”

- (#22) P: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 (#23) P: “1984년 남편이 귀국한 후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남편이 요구해도 주지 않았지. 경제적 기반만 잡으면 떠나겠다는 심정으로 살았죠.”
- (#24) P: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러운것, 더러운것, 그리고 음탕한것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다 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깐 그게 아닌거예요.”
- (#25) P: 내가 이해를 못했던거지. 이토록 성스러운수가 없는것, 자기를 다 내버릴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아담과 에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에화를 만드실때 순수하게 아담과 에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행동이라고요. 그야말로 인위적인 어떤 것 하나도 거기에는 개입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깐 그것만큼 순수한 자연적인 상태는 없는 거더라고요.”
- (#26) P: “성교를 할 수 있다라는 영광을 입은거지요 그것이 영광으로 오는 것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것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니깐 나도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고 내쪽에서 막 빨리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지.”
- (#27) P: “저사람이 안한다고 그래도 그건 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니깐. 이렇게 하다보니깐 내쪽에서 저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신념이 생기잖아요. 저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쪽에서 초대를 하는거죠 초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화려한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리이러한 파티가 장만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주인공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그 자리는 더 빛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렇다면 초대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좋은 자리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초대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자리라도 그 화려한 빛이 없어져 버리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 (#28) P: “그러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잖아. 내안에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니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울 수 있는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예요. 이 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랐던 거지 모르는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잖아.”

대상자는 성행위를 거의 요구하지 않았고 성행위때에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성교횟수도 드문 상태였다(#16, #17, #18, #19).

성욕구는 고사하고 거부감과 고통스러움과(#20, #21)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22). 성행위에 대해 초자연적인 신적 의미를 인식하고(#23) 성현상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양면적 의미변화, 수치스럽고 더럽고 음탕한 것에서부터(#24) 성스럽고(#25) 영광스

럽고(#26) 자랑스럽다는인식(#27)과 아울러 파티를 준비하고 배우자를 파티에 초대하는식의 긍정적, 능동적 자세를 취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28).

2. 부부의 상호작용

1) 의사소통

- (#29) P: “내가 잘난척하고 그냥 남편을 못살게 굴고 뭐 일도 안되지 뭐, 어떻게 그걸 다 설명을 해. 그런데 남편입장도 그렇지 뭐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답답하니깐 술만 마신거지 뭐.”
- (#30) P: “결혼생활이 9년째 되던 해 해외 파견근무 나갔지. 필리핀에서 4년, 사우디 2년, 해수로 6년정도 되었지. 그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 (#31) P: “의무적인 사항만 회신하고 안좋은일 같은 경우 병신같은 새끼하고 욕했죠. 그쪽에서 외로워진거야. 난 안살기 위한 준비를 한거죠.”
- (#32) P: “내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 싶은 애기를 다해버렸으니깐 가두어 두는게 없어요”

대상자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아내가 잘난척하며 못살게 굴고(#29) 해외파견된 남편에게 의무만을 하였으나(#30, #21) 한편 인간내면 세계의 많은 부분을

다 표현함으로 갖는 후련감을 맛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32).

2) 부부간의 친밀감 표현

-
- (#33) P : “내 쪽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여러가지로 남편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는거예요.”
 - (#34) P : “나는 애를 끌어안고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괴로우면 나가서 술을 먹어요. 난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런 짐승같은 인간이 있나 하고 애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친구들을 끌고와 가지고 여기서 술먹게 되었는데.”
 - (#35) P : “술먹고 방황하다 결국 회사도 못나가고 실직상태에 있게되니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었죠.”
 - (#36) P : “남들보다도 나만큼 미더운 사람이 없는거죠 어디를 가셔도 잠깐만 잘 곳이 없고 어디를 가셔도 밥한끼를 맘놓고 먹을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확실한 건강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쪽에서도 알게 되는 거죠.”
 - (#37) P : “남편이 과거에 했던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다 존경할 수 있는 것이지 나보다는 그래도 저사람이 한발 앞서 있었다. 성스러운 부분까지도 한 발 앞서가고 엄청난 변화가 되니깐”
 - (#38) P :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서둘러서 도와주고 차로 실어다 주고 기다려주세요.”
-

부부간의 친밀감이 생활고로 악화되고(#33) 아픈 아들을 간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협조하지 못하는 남편을 짐승같은 존재로 보게되고(#34), 술먹고 방황하다 실직까지 하게되어 더욱 미

움이 쌓이게 되나(#35) 서로 건강한 인연이라는 것과(#36) 남편이 존경스럽고 성스러워지기까지 하며(#37) 남편쪽에서도 서둘러서 아내일을 도와주는 친밀한 관계로 전환되었다(#38).

3.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수용및 적응과정

1) 인위적 피임방법 선택 및 부작용

-
- (#39) P : “나는 피임이다. 터울 조절이다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시어머니 쪽에서는 면사무소에서 피임약을 받아다 주는 거예요. 내가 애기가 8개월이 될 때까지 월경이 없었거든요. 월경을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첫번째 월경을 했을때 이거 먹으면 임신이 안된데.”
 - (#40) P : “임신이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기해. 신기한 것만 생각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 (#41) P : “제가 체격이 꽤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임신하기 이전 어려서 임신하기 이전까지는 뭐 계속 먹는데 몇달 먹고 나니깐 물을 해서 먹으면 먹으면 또 올라오고, 먹으면 또 올라오고 물은 넘어가는데 약은 안넘어가. 약만 떠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만 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너무 마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경마르는 것 같애. 내기분에 깡마르는 것 같고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신체적으로, 빈혈이 심해지고 자꾸 여기서 안받으니깐.”
 - (#42) P : “이전에 우리 애기아빠가 콘돔을 사와가지고 얼마간은 콘돔을 썼어. 그런데 콘돔을 쓰면 그렇게 아파.”
 - (#43) P : “내가 먹었던 피임약이 아기한테 이상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신이 되니까. 소아과, 산부인과를 13군데 돌아다녔어요.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이상이 없대는구나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뭔가가 켕기니깐 13군데씩이나 돌아다녔지. 그렇게 세월이 가니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깐 다행이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지 뭐. 그런데 이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잖아요.”
 - (#44) P : “피임약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롭지않은 곳이 없더군요만.”
-

대상자는 피임에 대한 이해가 없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주선으로 신기한 마음으로 경구피임약의 복용과 콘돔사용을 경험하게 되나(#39, #40) 피임약 복용으로 오심, 구토와 심한 체중감소를 경험하고(#41)

콘돔사용을 통해서도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42) 임신이 되었을때 혹시 피임약 부작용에 의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우려하여 13군데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43, #44).

2)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수용

(1) 초기

-
- (#45) P : “1978년 영세받든지 3개월 됐을때 수녀님의 권유로 1주일간 춘천에서 혼자서 NFP교육자 교육을 받았어요.
- (#46) P : “1주일간의 교육이 끝난후 수녀님이 뭘 배웠느냐고 물으시드군요. 자연적인 피임방법을 배웠다고 했죠. 난 그런 것 가르쳐준 일 없소 하며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 (#47) P : “아이가 죽자마자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시작했어요.”
- (#48) P : “NFP에 대한 원리를 남편에게 설명하지는 않고 남편이 성관계 원하는 것이 극에 달할때 안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될때 혼자 계산해서 주었지요.”
- (#49) P : “월경을 했다. 그리고 건조하다. 점액이 분비된다. 분비되고 그 중에서도 수정핵 점액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1, 2, 3까지는 가임기다. 하고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아니깐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지 내가 처음에 배울때 이것 하나를 해내는데 이렇게 구별된다고 그러는데 내 속으로는 이것들이 나타날때 이것 말고 딴 게 있을거야 라고 하면서 다 한달내 네모만 해 놓은 적이 있어요. 건조하다는 표시를 한달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일년동안을 이 감각이 이걸 ‘웃’자를 쥐야, 될까 X로 쥐야 될까 네모로 쥐야 될까 여기서 분명하지 않아요.”
- (#50) P : “일년정도 지나게 되면 이 분위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니깐 그때는 일일히 이걸 안해도 되는 거지.”
-

대상자는 1978년 영세받든지 3개월됐을때 수녀님의 권유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교육받고(#45, #46) 그즈음 차남의 죽음과 아울러 점액관찰을 남편에게 협조를 구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독특한 경우였

다(#47, #48). 1년동안은 관찰한 점액상태를 판단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49) 1년후 판단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50).

(2)적응

-
- (#51) P : “증상 체온은 나중에 배웠어. 배우고 이걸 해 보았더니 역시 이게 간편하더라고요.”
- (#52) P : “분별해주시기도 쉽고 한 몇년을 기록을 했으나, 한 4, 5년을 했을 거예요그렇게 하고보니깐 이제 안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명확하니깐 아침에 구태 이것을 안하더라도 되니깐 판단에 의해서 분명하다. 너무 선명하게 좋은 거예요.”
- (#53) P : “체온이 낮은 곳, 높은 곳 그리고 월경을 했던 점액이 있다 아니면 여기에 유방의 압통, 월경중간통 몸에서 어떤 많은 sign들이 있어요.”
- (#54) P : “배란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 전체를 자기가 다 감지해 낼 수 있거든요. 기록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거예요.”
- (#55) P : “여기에 오는 사람이 6개월을 만나는데 6개월동안 자기 cycle을 최소한 5개는 만들어 보게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잡는거예요. 그러면 여기 7명이 모였다면 5cycle씩 해가지고 35cycle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아 나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만한 거지.”
- (#56) P :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을 해야지. 그러니깐 한 15년 이상은 기록을 했지요. 15년이 뭐야 우리 아이가 지금 26살이고 개가 7살 때부터 했으니깐 20년 다되는 거지. 그렇죠.”
-

증상체온도 배우고(#51) 4-5년 기록했더니 정확한 판단력이 생기고(#52) 배란중후 및 월경중후를 알게 되고(#53, #54) 교육에도 자신이 붙었다. 교육 방법도 5-7명씩 그룹을 지어 6개월간 서로의 주기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어 현재 대상자는 20년 가까이 기록하고 교육하는 정상에 오른 지도자 및 수용자가 되었다(#56).

3) 적용결과

(1) 성취감

-
- (#45) P :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게 아주 지겨운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주위에 생겼으니깐 어떻게든지 이걸 버려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는거야. 그걸 해결하는 맛 그게 아주 일품이거든. 이걸 알아냈으니깐.”
- (#58) P : “그래서 고통의 신비여 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중에서도 감사한다 라는 말이 괜한 억지소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 감사한 거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 (#59) P : “평범한 길 누구든 잘 못가겠어? 어느 누구든지 다 잘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뭐 재미가 있겠어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것도 아름답지요. 올라가는 길이 험하지만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대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많이 올라가잖아요. 평범한 것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 (#60) P : “제가 처음에 자연적인 피임방법으로 알고 일을 하듯이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정상까지 도달했다고 보아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나 그 중간까지 온 사람도 전혀 등산을 안한 사람보다는 이제 시작한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한발 앞서 있잖아요. 거기까지라도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정상 까지 가야 되는 것은 그분들 개인의 일들이더라고요.
- (#61) P : “자랑스럽고 기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구원사업으로 이일을 하면서 부대 조건으로 주어지는 어떤 혜택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예로 급료가 싸다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권한이 없다라는 것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이것 자체가 좋으니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이일을 나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마 빼앗길 수 있을거예요.”
-

적용결과 대상자는 지겹다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들에서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고(#57) 고통의 신비여라는 고통의 가치를 인식하고(#58) 인생과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적용을 통해 정상에 올랐다는 것을 인식하고(#59)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60, #61).

(2) 태교

-
- (#62) P : “내 감정 상태라든가 건강의 상태라든가 라고 해가지고 체온모양이 달라요. 이 도표 모양이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기 통하는 것 그래서 초보자들이 처음 배울 때에는 낮은것, 높은것, 구별이 되는데 굴곡이 심해요. 이게 감정에 조절이 안되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이상이 생기면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 (#63) P : “어느정도 이 cycle을 두개 정도 만들고 한 3개 정도 들어가게 되면 객관성이 생기니까 감정 control이 되요. 내 감정이 control되면 내 감정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낮은 곳 높은 곳 해서 아주 의젓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런 도표를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그래서 너무 재미있으니깐 그냥 재고 있는 거예요 임신이 되도 임신된 애기 날때까지 10달을 그냥 재요. 자기가 조금만 과로를 해도 금방 여기서 체온이 뚝 떨어지는게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세속에서 얘기하는 엘로카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애기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나 웃기는 거잖아. 자기가 시장열 좀 가 가지구 과로 좀 했더니 오늘 체온을 재니까 체온이 뚝 떨어져요”
-

대상자는 증상체온을 측정해가면서 체온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현상에서 육체적 피로와 감정상태 굴

곡과의 관계를 이해하고(#62) 감정조절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태교의 지표로 삼도록 하였다(#63).

(3) 득남

-
- (#64) P : “난 지금 애기 나아도 여기에 맞춰서 아들을 나아요. 그렇게 분명해요. 이것이 그래서 내나이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쉽지 않거든요.”
- (#65) P :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한 충분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보는 때가 아니라 그 사람 개개인으로 보아서 성숙도라는 것이 있어요 성숙도와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내가 한사람에게는 아마 그런것들이 다 서로가 이해가 다 되도록 그리고 그사람의 눈으로도 세상을 그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놓았죠. 그래서 그사람이 실천적으로 오랜 세월을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자기관리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4번째 아기를 아들을 그런식으로 가졌죠. 3번째 아기를 가질때에도 아직은 너는 아직 이들을 때가 안됐어 니가 아직 덜 되었으니깐 라는 말을 누누히 했으니깐 자기 자신도 그걸 받아들이고, 사실이 그랬고, 4번째 아기 가질때쯤 되가지고 ‘나 이제 아들 낳아도 돼요’ 하고 물어왔을때 그래, 정말로 좋았을때 담먹고 한번 시도를 해봐라. 아주 한가지부터 열가지를 착실하게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애기를 만들고 남편하고 만나고 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나 아들 만들었다. 되봐야 알지. 에이, 만들었어. 아침에 허리가 뜨끈뜨끈하고 아파’. 이래요 그래 두고보자 진짜 애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보니까 그사람의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아들될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 아들이다. 그리고 한 다섯달 임신한지 한 다섯달쯤 되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한번 해봤지 근데 선생님들이 못 보는 거예요 아직 안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한 여섯달 한달 정도 더 지나가지고”
- (#66) P : “그사람의 인간성 인격까지를 다스려서 만들어야 되니까 몇년 내지 불가능할 수도 있는거고 그러잖아요.”
-

대상자는 오랜 경험을 통해 대상자의 수정기와 불임기가 분명한 점액분비상태를 보아 지금도 득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64) 교육대상자의 자연적 가족

계획방법 지도경험을 통해 득남의 비결을 파악하고 있으며(#65) 아울러 인간성의 성숙도와와의 관계를 제시하는(#66) 독특한 측면을 볼 수 있다.

4. 변화와 관련된 주요영향 요인

1) 신앙의 성숙

-
- (#67) P : “지금엔 신앙을 내가 완전히 갖고 보니까 지금은 더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극단적인 노예상태에 있던거지 지금은 내가 원하지만 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68) P :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참여를”
- (#69) P : “막는다는 것과 조절하는 것과는 다르지.”
- (#70) P : “창조적인 사랑이다 라고 했을때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제했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 (#71) P : “우리의 생명을 자녀들을 하느님이 만들어 내고 하느님의 것이다라고 본다면 친정 부모님과 나와와 관계 그 특별하게 두었던 것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 (#72) P : “처음에 이것을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 할때 나는 정말 쿵방귀였어 그까짓게 뭐 신앙이야 하나의 피임방법이지 뭐 신앙이야, 뭐 신앙 있는 사람만 쓰나 신앙 없는 사람은 뭐 못쓰나 신앙 안 가진 사람은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하기 위해서 이걸 쓰지요 신앙 안 가진 사람도 아래 단계에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고 보니까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야.”
-

대상자가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나 부부 상호작용면에서 부정적 소극적 성향과 인위적 피임방법 적용에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수용하고 적응하기 까지 영향을 준 요소는 신앙의 성숙이 요인이었다(#67).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수용원리인 절제를 통한 만남의 기쁨을 통해 창조적인 사랑과 하느님이 인간의 창조주임과 대상자가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동참자인식을 느끼게 되고(#68, #69, #70)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 초기교육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의 근본들이 단순한 피임이 아닌 창조주의 섭리를 따르는 길로서 하나의 신앙인의 길임을 인식하였다(#71, #72).

2) 자아존중감

대상자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적응과정을 통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었다(#73).

(#73) P: “내 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 그것을 내가 나를 확대하는 거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해야 되요 그건 내꺼니까.”

3) 고통의 의미 깨달음

(#74) P: “어려움이 많은 일들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게 사는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건 아니더라고요.”

(#75) P: “내가 도전 해야 되는 아주 묘미있는 일이죠 옛날에는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

(#76) P: “인생의 길에서 내 주위에서 얼크렁 설크렁 되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내 안에서 찾아낸 거 같아요.”

대상자는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74) 또 삶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게 되어 적응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75, #76).

V. 논 의

본연구의 결과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의 선택과정과 적응 및 교육자로서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대상자의 성장과정의 특성 및 1960년 당시 성교육에 대한 사회 및 고등교육기관의 인식부족으로 고등교육과정을 받았으나 월경생리, 이차성징 및 이성교제에 대한 성지식이 부족하고 극히 부정적이었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선택과정은 특별한 종교활동 즉 가톨릭 영세입교와 관련하여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을 받게 되고 영세입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특성으로 보아 수녀님의 권유로 1주일간의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을 받게 되고 자신의 적용과 아울러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담당자가 되었다.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수용도 초기과정은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조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일방적인 태도로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불임기에만 응하여 주는 극히 독단적이고 개성이 강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타연구에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 종교, 교육수준, 도시와 농촌,

자녀수, 직업, 결혼기간, 생존아들수, 가족계획지식 및 가족계획방법 이용에 대한 경험이 고찰되었다.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수용 및 적응과정에서는 처음에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다가 오심, 구토 등이 심하여 중단하고 다음에는 콘돔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성관계에 부정적인 견해와 질구의 협착으로 더욱 성생활을 고통스럽게 월1-2회 수반하던 중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을 받게 되었다.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수용자는 성욕이 별로 없는 부부에게 적합하다고 보기도 하나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의 월별 성교 빈도수는 6.9회이며 Hunt 연구에서도 6.2회, Kinsey 연구에서는 8.6회로 나타나 월별 성교 빈도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성생활 태도면에서는 성생활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태도를 보였다.

금욕문제는 Barbato & Bertolotti(1988)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중 18.4%가 금욕의 어려움을 표현했고 Tolar 등의 연구에서는 84%가 금욕의 어려움을 보고하여 두연구에서 금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의 수적 차이가 현저하였으며 연구대상자도 금욕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현상이었다. 부부관계에서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에게 특별한 성격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연방정부의 성격연구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문지 FPI, GT, IPC로 조사한 결과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와 비수용자간에 성격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PI설문지에서는 분명히 남

너 모두에서 심사숙고, 참을성, 신뢰적이고 도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거절하는 경향이었고 IPC설문지에서는 무기력이나 의존성을 덜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erez, A. et al., 1988) 본 연구 대상자도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결혼생활 및 질을 조사하기 위해 기혼자145명을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경험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I은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초보자(5-18개월) 36명, 그룹II은 진전된 수용자(19-60개월)49명, 그룹III은 경험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장기사용자(61-220개월)60명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두가지 발달로 나타났는데 첫번째는 계속적인 발달로 지배적인 태도(Dominant attitude)의 저하라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오래 사용할수록 대상자 자신들이 더욱더 사려깊어지고 근면해지고 참을성있고, 관대해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뢰성 있는 태도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다. 다음단계인 단계적인 발달은 초보자와 장기경험자 그룹이 총36개의 변수들 중 26개변수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났으며 진전된 그룹과 초보자 및 경험자 그룹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즉 진전된그룹이 자신감이 별로 없고 남편과 부인과의 사이에 불쾌감을 가졌고 우울해지고 만족이 별로 없으며 안절부절하고 간접적으로 예민하였다. 그 이유는 태도와 행동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토의되었다. 각 개인 및 부부가 함께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끝까지 받아들였을때 서로 얽혀지고 새로운 상황과 일치하여 협력하는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도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 수용초반기와 중반기까지 부정적 성향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였다. 즉 성교빈도 및 성관계태도에는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 수용전 및 사용중기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그후 적응결과 성생활태도면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 되었고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창조적인 사랑, 성취감, 기쁨, 깨달음과 아울러 부부관계와 생활면에서 행복을 맛보고 있었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자로서의 경험으로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이 하나의 단순한 피임방법이라기 보다 하느님의 은총이며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과 교육을 통한 타인의 경험에서 체득하였고 주 1회씩 6개월과정의 장기간의 2그룹지도 를 통한 각사람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점액관찰과 체

온측정을 통해 태아성별과 태교의 이치를 터득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의 특성과 장기 수용과정에서 경험하는 적응과정을 파악하여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용을 증진시켜 우생학적으로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코저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48세 중년여성으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18년 되었다.

연구는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수집을 위한 면담을 1994년 12월 30일부터 1995년 2월사이 연구자가 직접하였고 자료의 보안을 위해 보조연구자의 도움을 받았다. 면담시간은 1회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5회이었고 자료분석은 Agar의 분석단계에 따라 event(사건), theme(주제), adaptation(적용) 등 3가지 수준을 적용하였으나 연구기간관계로 적용관계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자연적가족계획방법 수용당시 대상자는 일류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였고 한명의 남자아이를 둔 가톨릭신자였고 소도시에 거주하였으며 개성과 책임감이 강하고 정의로운 일에는 끝까지 몰두하는 특성이 있었다. 피임법 선택과정에서 처음에는 인위적 방법으로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사용하였으나 오심, 구토, 성교시 심한 통증 등의 부작용으로 성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성생활태도면에서도 수치스러운 것, 더러운 것, 음탕한 것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초기단계에서는 성생활에 대해 계속 부정적 성향을 나타내었으나 중간단계 이후 적응과정에서 급작스럽게 깨달음과 아울러 성생활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갖게 되어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 성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화려한 파티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배우자에게 대해서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교육자로서도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6개월동안 그룹별 지도와 그룹지도 전후 개별상담을 병행하여 헌신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피임방법이기에 앞서 삶이며

신앙이라고 보았다. 앞으로 반복연구로 적용단계를 시도하고 조사연구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수용자의 특성과 적용에 대한 이론정립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박신애(1994).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의 자연가족계획방법 수용 및 사용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4권 2호. 170-188
- 맹광호 조규상(1985). 현대한국천주교회와 행복한 가정운동 한국교회사 논문집(Ⅱ). 서울.
- Barbato, M. & Bertolotti, G.(1988). Natural Methods for Fertility Control : A Prospective study-first Part.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48-51.
- Barzelatto, J. (1989). Closing remark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67
- Boys & Grace, A.(1989). Natural family planning and the couple relationship : a nationwid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104
- Frank-Herrmann, P, et al.(1991). Eff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symptothermal method of natural family planning in German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52
- Gomes, I. & Comgdon, D.(1988). The natural family planning programme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52-53
- Hahlweg, K. et al.(1989). Influence of conception regulation on partnership and sexual life.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27
- Kambic, R. et al.(1989). Effectiveness and Continuation of NFP Methods in Africa.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39
- Kippley, J.(1986). The effectiveness of natural family planning : the couple to couple league international Inc.
- Labbok, M. H. et al.(1991). Efficacy studies in natural family planning : issues and management implications illustrated with data from fiv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48-2051
- Mejia, G. et al.(1991). Service delivery part 1 : current programs and strategies for expans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72
- Mendis & Goodwin, H.(1989). Strategies in family life education.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131
- Mendis & Goodwin(1989). Psycho-social aspects of intra-familial relationships and behaviour in SRILANKA : Family studies and Services Institute, Colombo, Srilanka.
- Meng, Kwang-ho(1989). NFPprogram development-Korea.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28.
- Meng, Kwang-ho(198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ected personal and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NFP(Rhythm)users in Korea : Korea happy Family Movement, Seoul, Korea.
- Olus, os. et al.(1989). A study of som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natural family planning users inKenya.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28
- Perez, A. et al.(1988). Analysis of the outcome of 124 pregnancies Produced During NFP.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43-47
- Pyper, C. & Knight, J.(1989). A pilot study on teaching natural family planning in general practice. Oxford.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69
- Queenan, J. T. & Moghissi, K. S.(1991). Natural family planning: looking ahead.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79-1980
- Rodriguez-Garcia, R. et al.(1991)Experiences and trends in natural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outreach. American Journal of Ob-

- stetrics and Gynecology. 165(6). 2070
- Roetzer, J.(1988). Natural Family Planning and Pregnancy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40-42
- Sharma, R. K.(1991). Natural family planning use in Peru.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65(6). 2077
- St. Mart, R. et al.(1989) Autonomous NFP Users in the U. S. A. and in Mauritius.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40
- Trussell, J. & Grummer-strawn, L.(1991). futher analysis of contraceptive failure of the ovulation method.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54-2059